

BFA8

이온교환을 이용한 리튬이차전지용 층상 망간산화물의 합성과 전기화학적 특성 향상에 관한 연구

Improvement of the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layered manganese bronze synthesized by ion exchange for lithium secondary battery

조명훈 · 박기수 · 문성식 · 선양국* · 남기석

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, *한양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,

Mn계열의 양극활물질은 Ni나 Co를 중심금속으로 하는 양극활물질에 비해 저가이고 친환경적인 재료로 각광을 받고 있다. 이러한 Mn계열의 양극활물질은 크게 스피넬 구조의 LiMn_2O_4 와 층상 구조의 Li_xMnO_2 로 분류된다. 층상구조인 Li_xMnO_2 는 스피넬 구조인 LiMn_2O_4 에 비해 이론용량이 약 2배이상 높아 새로운 양극 재료로 각광을 받고 있다. 그러나 층상망간 산화물은 직접합성이 난해하여 이온교환을 통해 합성되어지고 있다. 층상망간 산화물은 크게 O₂, O₃ 구조로 분류되는데 P₂, P₃구조의 산화물로부터 이온교환방법을 통하여 각각 합성하고 있다. 그러나 O₃ 구조로 합성된 재료의 경우는 충·방전 과정에서 스피넬로의 구조가 전이되어 용량이 급격히 감소한다. 이러한 이유에서 구조적 전이를 억제하여 안정한 층상망간 산화물을 합성하는 것은 중요하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전이를 억제하기 위해 여러 실험 변수 (온도, 조성, chelating agent)를 변화시키면서 합성하여 전기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.

액상법의 하나인 졸-겔법을 사용하여 P₂, P₃구조의 $\text{Na}_{0.7}[\text{M}_x\text{Mn}_{1-x}]\text{O}_{2-y}\text{S}_y$ 를 합성한 후 Hexahol에서 LiBr을 이용하여 Na를 Li로 이온교환하여 O₂, O₃구조의 $\text{Li}_{0.7}[\text{M}_x\text{Mn}_{1-x}]\text{O}_{2-y}\text{S}_y$ 를 각각 합성하였다. 양이온 도핑제로는 Li, Ni가 사용되었으며 음이온 도핑제로는 S가 사용되어졌다. 합성된 시료는 XRD를 이용하여 구조적 관찰을 수행하였고 충·방전 실험으로 전기화학적 특성을 관찰하였다.

700 °C 이하에서 합성된 시료는 P₃구조가 형성되었으며 800 °C 이상에서는 P₂구조가 형성되었다. 하지만 Sulfur가 도핑된 시료는 800 °C 이상에서도 P₃구조로 합성되어졌다. M_x의 성분비가 $\text{Li}_{1/6}\text{Ni}_{1/6}$ 일 때 이온교환이 가장 잘 이루어졌다.

P₃로부터 O₃로 이온교환된 시료중 $\text{Li}_{1/6}$ 가 도핑된 경우 높은 초기 방전용량(261 mAh/g)을 나타낸 반면 충·방전이 진행됨에 따라 스피넬로의 전이가 발생하여 심한 용량감소(180 mAh/g)가 나타났다. 하지만 $\text{Li}_{1/12}\text{Ni}_{1/12}$ 로

도핑제의 성분을 변화시킨 결과 초기용량(246 mAh/g)도 높으면서 스피넬로의 전이속도를 늦추어 방전용량 감소(220 mAh/g)를 줄였다.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이온교환방법과 도핑제의 성분변화를 통하여 O₃구조의 급격한 용량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.